

민우혁 “수업 한쪽 떨어질 정도로 오열... 안중근 발자취 함께 하고파”

뮤지컬 ‘영웅’의 ‘안중근’ 역할 첫 도전
 “꼭 하고 싶었던 작품...무게감에 부담”
 “눈물 많아 오열...안중근에 매일 기도”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눈물, 콧물에 공연하다가 수업 한쪽이 떨어진 적도 있어요. 관객들이 이렇게까지 오열하는 안중근은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객석에서도 울쩍이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뮤지컬 ‘영웅’에 처음 합류한 배우 민우혁은 버킷리스트 목록 중 하나를 지우게 됐다. 2009년 초연 이후 아홉 번째 시즌을 맞은 ‘영웅’에서 ‘안중근’ 역을 연기하고 있는 그는 “이 작품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개막해 두 달여간 무대에 서 왔지만 아직도 공연 전 긴장이 된다. 하지만 다음달 블루스퀘어로 옮겨 5월까지 이어갈 공연에 더 신이 난다고 했다. 13일 기자들과 만난 그는 “남자 배우라면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작품”이라며 “이 작품이 주는 무게감에 굉장히 부담됐다. 아직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제의는 이전부터 받았다. 민우혁은 2017년 출연한 KBS 예능 ‘불후의 명곡’에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에 뮤지컬 ‘영웅’의 ‘장부가’를 더해 편곡한 무대로 우승했다. 당시 방송은 수많은 히트곡을 낸 작곡가·작사가 부부 김희갑·양인자 특집이었고, ‘영웅’ 제작사가 만든 뮤지컬 ‘명성황후’ 음악을 쓴 두 사람이 그를 제작사에 추천했다.

“2014년에 ‘영웅’을 처음 보고 국내 창작 뮤지컬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뮤지컬 배우로 성공한다면 이 작품을 꼭 하고 싶

다고 생각했죠.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땐 대극장 경험도 많이 없었고 걱정이 앞섰어요. 신티 하겠다고 말하기가 두려웠죠. 그래서 뮤지컬 배우로 성숙했을 때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초·재연부터 함께하며 안중근의 대표 얼굴로 꼽히는 배우 정성화, 양준모와 트리플 캐스팅이 부담되진 않았을까. “그동안 이 작품을 잘 만들어온 두 배우를 존경하고, 그 뒤를 이어 ‘영웅’의 발자취를 함께 가고 싶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제가 흑여 따라 하게 될까 봐 다른 배우들의 리허설을 잘 안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한번도 빼놓지 않고 선배들의 리허설을 다 챙겨봤어요. 이 작품의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달할까 고민하며 두 분이 생각하는 안중근을 살펴봤죠. 양준모 배우는 힘 있고 강인한 모습이고, 정성화 배우는 인간적이고 친근한 면모를 보여줘요. 저는 후배로서 두 선배의 장점을 저만의 것으로 잘 소화해 표현하려고 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기도도 하고 있다고 웃었다. “(안중근 의사에게) 수많은 관객 앞에서 선생님을 연기하려고 하는데, 그 신념과 의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죠. 후손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과 가족까지 희생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의 지를 제가 잘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뮤지컬 ‘광주’에도 출연한 그는 시대극을 만날 때면 심장이 더 뜨거워진다고 했다. 대극장 첫 데뷔였던 2015년 뮤지컬 ‘메미제라블’에서 혁명군 리더인 ‘양졸라’를 연기했을 때도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떠올렸다.

“인간의 의지와 신념이 이렇게나 강할 수 있다는 걸 연기하면서 느꼈어요. 제가 전생에 혁명군이나 독립군이 아니었을까 주변에 말할 정도였죠.(웃음) 이후 ‘광주’, ‘모래시계’, ‘영웅’까지 만나게 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메미제라블’ 때 만난 관객을 통해 배우로서 가야 할 길에 눈을 뜨기도 했다. “처음엔 조명을 잘 받고 멋있게 서있는 걸 공리했어요. 그런데 공연이 끝난 뒤 한 관객이 제 연기를 보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갈 마음이 들었다는 말에 눈물이 펄펄 났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그게 배우의 힘이라고 느꼈어요.”

그는 “예전엔 제 만족을 위해 했다면, 지금은 대사 한 글자 한 글자가 관객에게 위로와 응원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공연한다”며 “관객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야구선수를 하다가 부상으로 은퇴하고 가수 활동을 거쳐 2013년 뮤지컬에 뒤늦게 발을 들였다. 올해 데뷔 10년차를 맞은 그는 “두 번의 실패가 있었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금전적 어려움을 겪어 따로 레슨을 받을 수 없었던 그는 선배들 방에 찾아가 연습하는 소리를 녹음해 익히며 ‘도둑 레슨’도 했다고 추억했다.

“지금은 뮤지컬을 하기 위해 야구와 가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구를 해서 체력이 좋은 편이고, 가수로 훈련했던 시간도 잘



활용하고 있죠. 처음엔 뮤지컬 배우라고 말하기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서 기뻐요. 뮤지컬 배우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직업이에요.”

빅뱅 전 멤버 승리, 공항서부터 성 접대... 불법촬영물 공유도



연예계 “승리 죄질 너무 나빠...복귀 못할 것”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뒤 만기 출소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긴 판결문이 공개돼 그의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일 JTBC에 공개한 승리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며 이를 위해 4300만원을 지출했다.

승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성 접대를 시작했다. 2015년 12월 말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가 입국하자 공항에서 서울 호텔까지 이동하는 고급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 호텔에서도 성 접대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

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 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고 판단했다.

또 승리는 2016년 6월 중국에서 팬미팅 투어를 마친 후 중국 여성 3명이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불법 촬영했다. 이를 가수 정준영 등이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승리 측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승리 측 변호사는 JTBC에 “승리가 자숙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예계는 승리의 죄질이 너무 나쁘다며 그가 복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박고 있다.

마마무, 첫 월드투어 아시아 공연 성료



그들 ‘마마무’가 데뷔 첫 월드투어의 아시아 공연을 성료했다.

14일 소속사 알비더블유에 따르면 마마무는 지난 12일 필리핀 마닐라를 끝으로 첫 월드투어 ‘마마무 월드 투어 ‘마이 콘’의 아시아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을 시작으로 일본, 홍콩, 대만 등 아시아 9개 지역에서 총

15회 공연을 개최했다.

‘마이 콘’은 마마무가 데뷔 후 처음으로 갖는 월드투어에 개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를 입증하듯 서울을 비롯한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공연은 티켓 오픈 직후 전석 매진됐다.

마마무는 지난 10월 발매된 ‘일렐라 (ILLELLA)’를 비롯해 ‘Mr. 에메모호’, ‘음오아예’, ‘넌 is 민달’ 등 역대 히트곡을 총망라한 무대를 선보였다.

마마무만의 에너지가 빛나는 라이브 공연이 선사됐고, 마마무는 ‘마이 콘’에서만 볼 수 있는 솔로 무대와 감각적인 무대 구성을 뽐냈다.

마마무는 “아시아 투어를 위해 각 나라의 언어도 배우며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은 무무(공식 팬덤명)들이 저희의 모습을 좋아해 주셔서 뿌듯하고 매 순간 행복할 기쁨으로 남을 것 같다. 공연장을 가득 채워 주시고, 아낌 없는 응원에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 앞으로도 멋진 무대와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는 마마무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아시아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난 마마무는 이후 미주 투어로 현지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헤리→김채원, ‘핫’한 6인의 살림살이...입덕 준비 완료

ENA ‘헤미리에채파’ 다음달 12일 첫 방송

ENA 새 예능 ‘헤미리에채파’가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오는 3월 12일 오후 7시 50분 첫 방송되는 ENA ‘헤미리에채파’는 외딴 산골에서 안락한 정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헤미리에채파의 복작복작 살림살이를 담아낸 예능이다.

헤리(이혜리)부터 그룹 ‘(여자)아이들’ 미연, 리정, 가수 최예나, 그룹 ‘트레파킹’ 김채원, 파트리샤까지 가장 ‘핫’한 스타들이 고정 멤버로 확정돼 기대를 받고 있다.

‘복작복작 살림살이’라는 부제 속 멤버들은 각종 미션을 통해 주거에 필요한 용품을 얻고 텃 빈 집을 채워 넣으며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어디로 뭘지 모르는 귀와 에너지가 가득한 ‘헤미리에채파’ 여섯 멤버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텃 빈 집을 꾸미는 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하이앵글로 포착돼 생동감 넘치는 9인방의

활약상을 기대하게 만든다. 더불어 식재료, 가전, 주방용품 등 출연진들이 획득할 수 있는 살림살이 아이템이 아가지기하게 배경으로 더해져 흥미를 자극한다.

포스터에는 발랄한 멤버들의 매력에 고스란히 담겼다.

늘 파우 막내 역할을 했던 헤리의 언니미, 여신 이미지지만 사실 타고난 ‘웃수저’ 미연, 귀여움 담당이었던 예나의 게임 천재 면모, 조용하게 한방을 날리는 채원의 예능감과 대체 불가 파트리샤의 유쾌한 에너지가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모든 게 다 있는 힐링 별장으로 알고 왔지만 외딴 산골 텃 빈 집을 마주한 멤버들이 살림장만을 위해 온몸을 내던지는 활약상은 주요 웃음 포인트로 녹여질 전망이다.

‘헤미리에채파’ 연출 이태경 PD는 “공간 꾸미기라고 표현하면 좀 아가지기한 무드가 연상되지만 첫 녹화는 거의 야생 생존에 가까웠



다”고 귀띔했다.

뉴스스

NCT, 오리콘·빌보드 재팬 주간 1위

그들 ‘엔시티 드림(NCT DREAM)’이 일본에서 좋은 시작을 알렸다.

14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엔시티 드림은 지난 8일 발표된 일본 데뷔 싱글 ‘베스트 프렌드 에버(Best Friend Ever)’로 오리콘 주간 싱글 랭킹에 이어 주간 싱글 랭킹에서도 1위에 올랐다.

이에 오리콘은 이날 오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엔시티 드림의 일본 데뷔 싱글 ‘베스트 프렌드 에버’가 오리콘 주간 싱글 랭킹에 1위로 첫 등장했다”고 이번 1위 소식을 전했다.

더불어 이번 앨범은 빌보드 재팬 톱 싱글 세일즈 차트에서도 첫 주 판매량 34만 8133장을 기록하며 주간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의 일본 데뷔 싱글 ‘베스트 프렌드 에버’는 정량하고 정교한 매력을 가진 동명의 타이



틀곡과 히트곡 ‘버퍼링(Glitch Mode)’ 일본어 버전 총 2곡으로 구성됐다.

한편, 엔시티 드림은 오는 17~19일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두 번째 투어 ‘더 드림 쇼2 : 인 어 드림 - 인 재팬’을 개최하고 현지 팬들과 만난다.